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제1강: 빌립보서 소개,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매튜 S. 하몬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강의는 빌립보서 소개 1차시입니다.

빌립보서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트 하몬 박사입니다. 그레이스 칼리지와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쓴 이 위대한 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제가 멘토 주석 시리즈에서 쓴 주석서에서 가져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주석서에는 빌립보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주석서를 참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강좌를 시작할 때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강좌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바로 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것과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달려 있다. 곧 모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살펴보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깊이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강좌에서 우리가 세운 두 가지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과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깊이 연구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유익을

주지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수업이 상호작용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텍스트에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텍스트에 어떤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업이 그런 의미의 상호작용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을 때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나누기를 진심으로 권장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큰 그림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가르치고 싶은 모든 수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기초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 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접할 때는 언제나 그 구절을 올바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맥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구속적 맥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이 편지를 발견할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메타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정한 편지를 통해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부어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부어져 거하시는 시대입니다.

셋째, 성령께서 복음 선포를 강화하심에 따라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빌립보 시대, 그리고 그 당시의 구속사적 상황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은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성경 정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접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내용을 요한이 쓴 내용, 마태와 누가가 쓴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에는 그러한 이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접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완성된 성경 전체를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 속에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본문 전체를 읽을 시간은 없지만,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길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 즉 기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선교팀의 일원이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은 서기 49년이나 5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는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령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바울이 그 시점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사모트라케로 갔고, 다음 날에는 네아폴리스로, 거기서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요 도시이자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며칠 머물다가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앉아 모여 있던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티아티라 출신의 리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줏빛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세례를 받았고, 그녀의 가족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제가 주님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최초로 개종한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개종 덕분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루디아가 바울과 그의 일행 전체를 재워줄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재산을 가진 여성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누가가 전하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당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여종 주인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들은 여종이 하는 말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악령이 들려 있어서 노예 주인들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말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사라지자, 영향력 있는 노예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넘겼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룻밤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 이건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에 큰 재앙이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들은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간수는 이 사실을 알고는 '안 돼, 저들이 탈출하겠어. 내가 책임져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자해를 하려던 찰나, 바울이 '잠깐만요, 우리 모두 여기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간수가 등불을 가져오라고 소리치자(29절), 급히 달려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보살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 당국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러 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는 순순히 가기를 거부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로마 시민이며,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 일은 로마 법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로마 당국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사과하고는 그들이 가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중 하나는 소위 '우리'로 시작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건을 3인칭, 즉 '그들'과 '그'로 묘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같은 곳에서 갑자기 "우리", "우리의" 같은 대명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누가복음 저자가 내가 그

사건들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바울이 빌립보로 부름받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기간이 끝나는 부분에서 멈춥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갑자기 다시 "그들", "그들", "그", "그에게"와 같은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1인칭 대명사 대신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떠난 후 누가 빌립보에 남아 얼마 동안 교회에서 활발히 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 도시 빌립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추정치이며, 우리가 가진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추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들에 대해 너무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정확한 추정에 따르면, 필리피의 인구는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필리피는 마을이기도 했고, 군인 출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했으며, 로마 식민지였지만, 실제로 로마 시민권자는 전체 인구의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로마 시민은 40% 미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책 후반부 1장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요 도시였으며, 고대 세계의 주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과 상거래가 그곳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곳은 매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로마 식민지였던 필리피는 로마의 축소판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라틴어가 공식 언어였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어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주변 경작지에는 군인 출신 퇴역병들과 농부들이 거주하여 필리피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모든 주요 그리스와 로마 도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곳들이 매우 다원적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다원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숭배되던 인기 있는 신들 중에는 실바노스, 디오니소스, 아울리니테스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가 존재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나 경배, 즉 황제 숭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학계에서 다소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필리피가 로마 식민지였다면, 이러한 숭배가 필리피 시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평소 관례에서 약간 벗어난 행동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고대 세계의 도시들에 도착하면 대부분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실, 언급된 것은 기도처 하나뿐인데, 아마도 빌립보 시 외곽의 강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너무 많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을 세울 만큼 충분한 유대인 남성이 없었다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남자 열 명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안식일에 기도와 예배를 위해, 종종 물가 근처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빌립보에 유대인 인구가 거의 없거나 극히 적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에게 제기된 혐의 중 하나는 노예 주인들이 바울을 당국 앞에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할 수 없는 관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방식에서도,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이고 로마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어긋나는 이방 관습을 들여오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빌립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복음이 현대 유럽으로 전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중동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서면서 복음이 현대 유럽으로 전파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모두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했듯이,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서기 49년이나 50년경인데, 그가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그로부터 약 10년 후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에 이르러서는 제가 보기에 안정된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혼란과 혼돈의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 교회는 감독과 집사까지 둘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즉, 조직과 권위가 확립되어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여러 번 접하게 될 텐데, 빌립보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그들은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해 바울의 필요에 여러 번 기꺼이 헌금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과 확연히 구분 짓는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하는 넘치는 관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화합하라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바울의 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은 아닙니다.

바울은 과별과 분열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에 과급 효과를 미치기 시작한 심각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박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박해가 어떤 종류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장의 해당 구절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경제적인 측면과 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박해에 맞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교회들이 거짓 가르침에 면역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는 무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 장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홍보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어조와 주제는 분명히 기쁨과 감사입니다.

차이점을 확실히 느껴보시려면, 빌립보서를 갈라디아서 바로 옆에 놓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조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전서와 비교해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조와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다루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바울이 깊이 감사하는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관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울이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나 고린도, 혹은 가이사랴에서 투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계의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는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인 에바프로디도를 바울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로마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일어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매우 길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프로디도를 통해 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바프로디도가 병에 걸렸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에바프로디도는 로마에 도착했지만, 바울은 그가 괴로워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슬픔과 낙담을 안겨준 것을 걱정했고, 교인들이 염려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프로디도가 우리가 보낸 선물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쉽고 안전한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에바프로디도는 그 돈을 직접 가지고 다녀야 했고, 습격을 당하거나 돈을 도난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모은 돈이 도난당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던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에바프로디도는 로마에 도착했고, 바울은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하며 빌립보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게 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편지는 서기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맥락을 살펴보고, 이제 문학적 맥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편지 전체의 전반적인 범위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본문, 그리고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복음이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의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는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논증을 전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소위 '그리스도의 찬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중심이자 핵심은 바로 이 찬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높이셨는지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편지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제가 '복음 안에서의 성장과 감사'라고 이름 붙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와 권면을 전하고, 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5만 피트 상공에서 본 개요입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각 항목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 편지 전체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기쁨과 환희의 분위기입니다. 이 점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바울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놀라운 묘사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 순종, 심지어 성육신 이전에도 존재하셨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 음미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개념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보통 '주의 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차용하여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빌립보서 곳곳에서 강조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 동역입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이 단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핵심은 복음의 혜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많은 주제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관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흔히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방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올바른 지적 신념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빌립보서 소개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약의 활용입니다.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구약 인용구가 많지는 않지만,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논할 때 구약을 암시하고 활용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 찬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구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짧은 글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용법 사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튜 S. 하몬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빌립보서 소개 첫 번째 시간입니다.